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경 원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S.Prokofiev 의 음악적 특징 및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 에 관한 연구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이 진 영

S. Prokofiev 의 음악적 특징 및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에 관한 연구

임 경 원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기악전공

이 진 영

인 준 서

이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박 초 연 인

심사위원 임 경 원 인

심사위원 김 유 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소나타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의 음악적 특징: ‘고전적 요소, 화성의 혁신적 요소, 토카타적 요소, 서정적 요소, 해학적 요소’와 다양한 작곡 기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프로코피에프는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가이다. 그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였지만 수많은 오페라, 실내악, 교향곡, 발레곡 등을 작곡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은 활동하던 지역을 통해 3시기로 나눌수 있는데 초기는 어린 시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을 하던 시기, 중기는 러시아의 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을 피해 미국과 유럽에서 작품활동을 하던 시기, 말기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스탈린 정부 아래서 활동하던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Cello Sonata Op.119’는 프로코피에프가 러시아로 귀국하여 활동하던 마지막 시기에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의 영향을 받아 작곡되었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이루어진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하고 완성한 유일한 첼로 소나타 곡이다. 1악장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된 고전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Andante의 느린 빠르기로 시작하며 두가지의 주제로 곡을 이끌어 나간다. 2악장은 스케르초 풍의 3부형식으로 구성되며 1악장 C Major의 버금딸림 음조인 F Major로 진행된다. 3악장은 1악장과 같은 소나타형식이며 원조인 C Major로 돌아와 진행된다.

이 곡은 고전소나타에서 볼수있는 고전주의 양식과 프로코피에프가 강조하던 5가지 작곡기법인 ‘고전적, 화성의 혁신적 사용, 토카타적, 서정적, 해학적’ 기법이 잘 나타나 있는 곡이다. 또한 다양한 박자와 빠르기변화를 통하여 신고전주의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프로코피에프 생애와 음악적 특징	2
1. 생애와 활동	2
2. 음악적 특징	8
III. 프로코피에프 첼로소나타 Op.119의 분석	16
1. 제 1악장	17
(1) 제시부	18
(2) 발전부	22
(3) 재현부	26
(4) Coda(종결부)	27
2. 제 2악장	30
(1) A부	30
(2) B부	33
(3) A' 부	35
(4) Codetta	35
3. 제 3악장	36
(1) 제시부	36
(2) 발전부	39
(3) 재현부	41
(4) Coda(종결부)	44

IV. 결론4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프로코피에프 첼로소나타의 구성	16
〈표-2〉 제 1악장의 구성	17
〈표-3〉 제 2악장의 구성	30
〈표-4〉 제 3악장의 구성	36

악 보 목 차

〈악보-1〉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3악장 1-5마디,399-끝마디	9
〈악보-2〉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Op.4 제4곡	10
〈악보-3〉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1악장 167-176마디	10
〈악보-4〉 신데렐라 Op.87 1. Introduction 1-4마디	11
〈악보-5〉 순간의환영 Op.22 제 16곡 1-4마디	11
〈악보-6〉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2악장 116-125마디	12
〈악보-7〉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3악장 336-443마디	12
〈악보-8〉 토카타 C Major Op.11 1-4마디	12
〈악보-9〉 토카타 C Major Op.11 111-114마디	13
〈악보-10〉 어릿광대 모음곡 Op.21bis 제 7곡 30-31마디	13
〈악보-11〉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2악장 386-395마디	14
〈악보-12〉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2악장 397-402마디	15
〈악보-13〉 소나타 Op.119 1악장 1-12 마디	18
〈악보-14〉 소나타 Op.119 1악장 13-18마디	19
〈악보-15〉 소나타 Op.119 1악장 21-26마디	19
〈악보-16〉 소나타 Op.119 1악장 33-38마디	20
〈악보-17〉 소나타 Op.119 1악장 41-46마디	21
〈악보-18〉 소나타 Op.119 1악장 62-70마디	21
〈악보-19〉 소나타 Op.119 1악장 71-76마디	22
〈악보-20〉 소나타 Op.119 1악장 79-82마디	23
〈악보-21〉 소나타 Op.119 1악장 90-102마디	24

<악보-22> 소나타 Op.119 1악장 112-118마디	25
<악보-23> 소나타 Op.119 1악장 135-140마디	26
<악보-24> 소나타 Op.119 1악장 166-171마디	26
<악보-25> 소나타 Op.119 1악장 186-193마디	27
<악보-26> 소나타 Op.119 1악장 203-214마디	28
<악보-27> 소나타 Op.119 1악장 215-218마디	29
<악보-28> 소나타 Op.119 1악장 238-243마디	29
<악보-29> 소나타 Op.119 2악장 1-10마디	31
<악보-30> 소나타 Op.119 2악장 13-17마디	31
<악보-31> 소나타 Op.119 2악장 24-29마디	32
<악보-32> 소나타 Op.119 2악장 47-57마디	33
<악보-33> 소나타 Op.119 2악장 65-71마디	34
<악보-34> 소나타 Op.119 2악장 90-93마디	34
<악보-35> 소나타 Op.119 2악장 105-108마디	35
<악보-36> 소나타 Op.119 2악장 109-113마디	35
<악보-37> 소나타 Op.119 3악장 1-11마디	37
<악보-38> 소나타 Op.119 3악장 32-39마디	38
<악보-39> 소나타 Op.119 3악장 102-109마디	39
<악보-40> 소나타 Op.119 3악장 126-128마디	40
<악보-41> 소나타 Op.119 3악장 134-139마디	41
<악보-42> 소나타 Op.119 3악장 170-174마디	42
<악보-43> 소나타 Op.119 3악장 194-198마디	43
<악보-44> 소나타 Op.119 3악장 215-221마디	44

I. 서론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Sergei Prokofiev, 1837-1953)는 20세기에 활동한 러시아의 신고전주의¹⁾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은 활동했던 지역에 따라 3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어린 시절 러시아에서 음악공부를 하던 초기, 러시아의 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을 피해 조국을 떠나 미국과 유럽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중기, 다시 러시아로 돌아와 스탈린 정부 아래서 활동하던 말기로 나눌 수 있다.

프로코피에프의 시기별 작품 특징은 초기에는 주로 피아노곡을 작곡했으며 불협화음을 사용하는 혁신적이며 실험적인 음악관을 가졌으나 고국 러시아의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점차 서정적이며 선율적, 고전적인 음악적 색을 더해갔다. 중기에는 러시아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미국과 유럽에서 작곡 활동을 하며 피아니스트로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말기에는 러시아로 돌아가 작품 활동을 하였지만 그 당시 러시아는 정부가 예술 활동을 억압적으로 통제하였다. 예술은 인민들에게 애국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담아 쉽게 들려주어야 했으며 무조적 음악이나 자유로운 음악을 배척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프로코피에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억압적인 정치적 영향 아래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며 교향곡, 발레곡, 오페라 등 수많은 명곡을 작곡하였다.

본 논문은 프로코피에프의 생애와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인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를 분석하고, 또한 이곡에 나타나있는 ‘고전적, 혁신적 화성의 사용, 서정적, 토카타적, 해학적’ 5가지 요소의 음악적 특징과 다양한 주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전주의 : 낭만파의 감정과다한 예술에 대한 반동으로서 발생한 20세기 음악의 한 경향. 제1차 세계대전 후 주로 부조니가 제창하고 체계화했다. 음악에 있어서는 음의 길이나 간격, 음향에 대한 엄격한 객관적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바로크 또는 그 이전의 대위법적 주법을 존중함

II. 프로코피에프의 생애와 음악적 특징

1. 생애와 활동

1891년 4월 23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의 손트소브카(Sontsovka) 에서 태어난 프로코피에프는 부유한 농업기술자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였던 귀족출신 어머니에게서 음악 교육을 받았다. 프로코피에프는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나 다섯 살 때 최초로 짧은 곡을 작곡하였고 9살 때 베토벤의 쉬운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였다. 1900년 초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유행한 오페라인 구노(Charles Francois Gounod, 1818-1893)의 ‘파우스트(Faust)’ 를 본 후 ‘거인(The Giant)’ 과 ‘무인도(On Desert Island)’ 라는 두 개의 오페라를 썼다. 1902년 글리에르(Reinhold M. Gliere, 1875-1956)를 모셔와 화성법 기초와 관현악법을 배웠고, 글리에르의 도움을 받아 교향곡과 짧은 피아노 곡들을 작곡하였다.²⁾

1904년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sburg) 음악원에 입학하여 리아도프(Anatol Lyadov, 1855-1914), 림스키 코르사코프(Nikolay Rimsky Korsakov, 1844-1908)에게 작곡법을 배웠으며, 체레프닌(Nikoly Tcherepnin, 1873-1945)에게 지휘법을 배웠다. 1908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음악의 밤’ 이라는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피아노곡을 연주하여 작곡가로 공식 데뷔를 하였고 이때부터 유럽 근대음악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11년 관현악곡 ‘꿈(Dreams, Op.6)’ 과 ‘가을스케치(Autumnal Sketch, Op.8)’ 를 작곡하여 ‘현대음악의 밤’ 모임에서 초연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14년에 피아노 연주부문에서 루빈스타인상을 받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음악원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영국 런던에서 디아길레프(Sergei Pavlovich

2) 한미숙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20세기 작곡가연구2” 서울 음악세계, 2009, p.201

Danghilev, 1872-1929)에게 발레음악 작곡을 의뢰받아 러시아로 귀국 후 ‘알라와 롤리(Ala et Lolli, Op.20)’를 작곡하였다. 하지만 이곡은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1915년 4개의 부분을 발췌하여 편곡해 그의 최초의 대규모 관현악곡 ‘스키타이모음곡(Scythian Suite, Op.20)’으로 작곡하였다.

초기 시기에는 여러 장르의 곡을 실험적으로 작곡하여 1917년 최초의 신고전주의 작품인 ‘고전교향곡(Classical Symphony, Symphony No.1 in D Major, Op.25)’을 작곡하였다. 이 작품은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의 음악을 모델로 삼아 고전주의 형식과 조성, 작곡기법을 재현하였다. 4개의 악장에 2관 편성으로 고전주의 교향곡형식을 따랐으며 특유의 재치와 역동적인 리듬, 화성기법을 적절히 적용하여 프로코피에프에게 명성을 가져다주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2월 혁명³⁾’과 ‘러시아 혁명⁴⁾’을 계기로 1918년 러시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미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적 초기 시기로 볼 수 있다. 초기 음악은 차이코프스키(Peter Tchaikovsky, 1840-1893),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 등의 음악을 좋아하여 보수적이며 고전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후에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 레거(Max Reger, 1873-1916) 등의 새로운 음악을 접하며 좀 더 대담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하였다. 초기에는 피아노 곡을 주로 작곡하였으며, 현대적이고 혁신적 음악을 위해 불협화음들을 사용해 화성적 실험을 많이 하였다.

미국으로 망명한 후 중기시기에는 작곡가로서보다는 피아니스트로써 미국과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19년에는 시카고 오페라단의 의뢰를 받아

3) 1917.03.08.(구력02.24) 러시아 혁명의 제 1단계.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식량부족을 건디 다못해 일으킨 시민의 봉기. 이 혁명으로 왕정이 타도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4) 20세기의 세계사에서 가장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회변혁, 2월 혁명으로 성립된 정부가 무능하여 소비에트와의 이중 권력 구조상태가 지속됨. 이에 망명처로부터 귀국한 레닌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민중의 지지를 넓혀, 11월 7일 무장봉기를 일으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오페라 ‘3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L’ Amour des Trois Oranges, Op.33)’ 을 작곡하였다. 그러나 리허설 도중 캄파니니(Cleofonte Campanini, 1860-1919) 의 죽음으로 그해 공연되진 못하고 연기되다가 이곡은 1921년 말에 초연되었다. 1920년 프랑스 파리로 옮겨가 당시 영향력 있던 프랑스 6인조⁵⁾ 중 특히 빨랑과 친밀하게 지낸다. 파리에서는 디아길레프를 위해 작곡했던 발레 ‘어릿광대(Chout, Op.21)’ 가 상연되었으며 ‘피아노 협주곡 제3번(Piano Concerto No.3, Op.26)’ 도 완성되었다. 1923년 레닌그라드 교향악단이 프로코피에프에게 연주회 계약을 제의하며 러시아로 돌아오라는 공적인 초대장을 보내왔다.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지만, 그가 작곡한 작품 중 일부가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연주되었다.⁶⁾ 1923년 프로코피에프는 파리에서 카롤리나 류베라 코디나(Carolina Codina)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었다.

1924년 ‘교향곡 제2번(Symphony No.2, Op.40)’ 을 작곡하여 구성주의 미학⁷⁾에 접근하였고 1925년에는 소련의 공업화 실현을 주제로 하는 구성주의적 발레곡을 디아길레프로의 의뢰 받아 발레곡 ‘강철의 걸음(Pas d’ Acier, Op.41)’ 을 작곡하였고 1927년 초연은 성공적이었다. 또한 1927년 고국을 떠난 지 9년만에 러시아에 방문하여 3개월 동안 연주여행을 다니며 호평을 받았다. 1928년에는 복음서의 우화에 기초한 방탕한 아들에 관한 발레곡을 디아길레프에게 의뢰받아 발레곡 ‘방탕한 아들(The Prodigal Son, Op.46)’ 을 작곡하였다. 1933년엔 알렉산더 페인zimmer(Alexander Feinzimmer) 감독의 영화 ‘키제중위’ 를 위한 음악 ‘키제 중위(Lieutenant Kije, Op.60)’ 를

5) 몽파르나스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루이 뒤레(Louis Durey, 1888-1979), 다리우스 미요(Darius Milhaud, 1892-1974),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1892-1955), 조르주 오리크(Georges Abel Louis Auric, 1899-1983), 제르맹 타유페르(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프랑시스 빨랑(Francis Jean Marcel Poulens, 1899-1963)

6) 한미숙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20세기 작곡가연구2” 서울 음악세계, 2009, p.211

7) 일체의 사실적인 묘사(描寫)나 재현(再現)을 거부하고 순수 형태의 구성(構成)을 지향하며 추상적인 조형(造型)에 의한 새로운 예술미를 추구하는 경향

작곡하였고 후에 모음곡으로 편곡하여 1934년 모스크바에서 초연하였다. 중기 시기에는 작곡가로 활동하기보다 피아니스트로 많이 활동하여 오페라곡과 발레곡등 관현악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그는 러시아를 떠나 있었지만 당시 러시아의 음악과 같이 불협화음, 잦은 전조와 같은 혁신적인 경향의 작품을 썼다.

1936년 국가적 영웅 대우를 받으며 러시아로 돌아와 1953년까지 17년동안 프로코피에프는 자신의 마지막 음악활동을 고국에서 하였다. 1936년 어린이를 위한 ‘피터와 늑대(Peter and the Wolf Symphonic Tale for Children, Op.67)’ 대규모의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Romeo et Juliette, Op.64)’을 작곡하여 극예술의 정점이라 평가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는 권력의 통제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화되어 예술계도 많은 억압을 받았다. 1936년 쇼스타코비치의 ‘므첸스크의 맥베드 부인(Lady Macbeth of Mtsindk)⁸⁾’을 프리우다 신문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실렸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예술가들도 비난을 받으며 체포되고 총살당하였다. 많은 러시아 음악가들이 예술적 자유를 위해 소련을 부정하고 망명하는 것을 택하였으나 프로코피에프는 예술적 자유를 희생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작곡가가 되었다. 1938년 프로코피에프는 ‘10월 혁명 20주년 기념 위한 칸타타 Op.74 (막스, 레닌과 스탈린의 글에 붙인)’를 작곡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반영하려 하였으나 생전에 연주되진 못했다.⁹⁾

영화감독 아이젠슈타인(Sergey Eisenstein)과 만남으로 함께 역사적이고 애국적인 영화 ‘알렉산드르 네프스키(Alexandre Newski, Op.78)’ 음악을 쓰고 1939년 12월에는 스탈린 탄생 60주년 기념을 위한 칸타타 ‘스탈린만세(Hail to Stalin, Op.85)’를 작곡하면서 체제 찬사자의 행렬에 가담했다. 1940년 두 번째 부인인 미라 멘델손(Mira Mendelson)을 알게 되며 그녀를

8) 1934년도에 발표된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은 전통 오페라와 달리 상당히 전위적인 작품이었다.

9) 한미숙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20세기 작곡가연구2” 서울 음악세계, 2009, p.217

조수로 두고 오페라와 곡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1941년 심장마비로 건강이 악화 되었지만 부인 멘델손의 간호와 도움으로 오페라 ‘세미온 코트코 (Semyon Kotko, Op.81)’ 와 ‘전쟁과 평화(Guerre et Paix, Op.91)’ 를 작곡하였고 발레곡 ‘신데렐라(Cendrillon:Zolushka, Op.87)’ , ‘피아노 소나타 8번(Piano Sonata No.8 in B^b Major, Op.84)’ , ‘교향곡 5번(Symphony No.5 in B^b Major, Op.100)’ 등 여러 작품을 작곡하였다. 1945년 뇌진탕으로 건강이 악화되 활발했던 작곡 활동은 뜸해지게 된다. 이 때 대작 ‘교향곡 5번(Symphony No.5 in B^b Major, Op.100)’ 이 발표되었으며 ‘교향곡 6번(Symphony No.6 in E minor, Op.111)’ , ‘교향곡 4번(Symphony No.4 in C Major, Op.112)’ , ‘피아노협주곡 9번(Piano Sonata No.9 in C Major, Op.103)’ 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 주제인 ‘Cello Sonata Op.119’ 은 1947년 로스트로포비치 (Mstislav Rostropovich, 1927-2007)가 미야스콥스키(Nikolai Myaskovski, 1881-1950)의 ‘첼로소나타 제2번’ 을 초연하는 모습을 보고 로스트로포비치의 재능과 연주에 깊이 감동 하여 그를 위한 첼로소나타를 작곡 하였다. 1938년 ‘첼로 협주곡 제1번(Cello Concerto No.1 in E minor, Op.58)’ 을 완성하여 모스크바에서 초연하였으나 평이 좋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곡이 1947년 로스트로포비치에 의해 피아노 반주가 있는 첼로 곡으로 연주 되었는데 이에 감명을 받아 1952년 ‘협주곡 제2번’ 으로 개작하여 로스트로 포비치의 연주로 초연하였다. 후에 이 작품을 다시 ‘교향협주곡(Sinfonia Concertante, Op.125)’ 으로 재정하여 지휘엔 리히터(Sviatoslav Richter, 1915-1997),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독주로 1954년 덴마크에서 다시 연주되었다. 이 무대는 피아니스트인 리히터가 지휘자로 올라간 유일한 연주회로 유명하나 그는 이 연주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이 시기에 또 다른 첼로 곡 ‘콘체르티노(Concertino, Op.132)’ 를 작곡하고 있었으나 1악장

오케스트라 편곡과 2악장 피아노 편곡을 해두고 완성하지 못한채 사망하였고 이곡은 카발레프스키(Dmitry Kabalevsky, 1904-1987)가 완성시켰다.

프로코피에프가 작곡한 첼로 곡은 1912년의 ‘Ballade for Cello and Piano in C minor, Op.15’ , 1938년의 ‘Cello Concerto No.1 in E minor, Op.58’ , 1949년의 ‘Cello Sonata in C Major, Op.119’ , 1952년의 ‘Cello Concerto in G minor, Op.132’ 와 ‘Sonata for Solo Cello in C# minor, Op.134’ 로 총 다섯 곡이 있다. 그러나 ‘Cello Concerto No.1’ 은 1952년에 ‘Sinfonia Concertante Op.125’ 로 개작되었으며 1952년 작곡하기 시작한 첼로 곡 두곡은 프로코피에프가 완성시키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완성인 ‘Cello Concerto Op.132’ 은 로스트로포비치와 카발레프스키가 완성하였고, ‘Solo Cello Sonata Op.134’ 는 블라디미르 블룩이 완성 시켰다. 그러므로 프로코피에프가 완성시킨 첼로 곡은 오로지 세곡이며, 소품 곡을 제외한 대곡으로는 ‘Cello Sonata Op.119’ 와 ‘Sinfonia concertante Op.125’ 단 두 곡 뿐이다.

1948년 프로코피에프의 초기작품은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며 거의 모든 작품이 공연금지를 당했음에도 몇 기악곡과 발레곡 ‘석화의 이야기 (la Legende de la fleur de pierre, Op.118)’ 등을 완성하였다. 그의 음악은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을 성공적으로 융합시킨 시도로 받아들여지며, 세련된 기법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러시아는 물론 20세기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1953년 3월 스탈린과 같은 날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2. 음악적 특징

프로코피에프의 작품 목록은 작품 번호 131번로 20세기 작곡가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겼다. 7개의 교향곡, 오페라 11곡, 발레곡 9곡, 합창곡 10곡, 피아노와 실내악곡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고국인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서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작곡가이다. 그는 발레나 오페라를 작곡한 후 이를 무대음악이 아닌 연주회용 관현악 곡이나 피아노곡으로 편곡하여 모음곡을 만들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주제를 적어 두고 보관하고 있어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작곡을 하였으며 발레나 오페라 음악을 교향곡의 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는 1941년도에 쓴 자서전에서 자신의 음악을 ‘고전적 요소’, ‘화성의 혁신적 요소’, ‘토카타적 요소’, ‘서정적 요소’, ‘해학적 요소’에 기초하여 작곡했다고 말했다. 이 5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프로코피에프는 고전주의시대의 전통적인 작곡기법에 기초를 두어 불협화음과 현대적 기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작곡하였다. 그는 교향곡이나 소나타의 1악장에서는 약간의 변형이 있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였다. 느린 악장이나 중간 악장에서는 3부분 형식이나 2부분 형식을 사용하였고 가끔 변주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끝 악장에서는 론도형식을 사용하기도 하며 형식과 조성을 유지하려 하려 하는 등의 ‘고전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악보 1>을 보면 E Major의 으뜸화음 안에서 주제를 노래하고 으뜸음 E로 강렬하게 마무리하며 ‘고전적 요소’를 보여준다.

<악보 1>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3악장 1-5마디, 399-끝마디

프로코피에프는 거의 모든 기악 작품에 조성을 두어 주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반음계적음이나 화성을 사용하였으나 기본3화음은 유지하였다. 초기작품에서는 3화음을 꾸며주는 풍부하고 불협화음에 매료되어 화성적인 실험에 집중하였다. 초기작품인 <악보 2>를 보면 반음계적 진행과 불협화음을 사용한 3화음, 증9도를 도약하는 음을 사용하여 실험적인 화성적 진행을 보여준다. 중기의 1928-36년 사이에 화성에서 대위법으로 관심이 옮겨가는데, 초기 곡에서의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진 밀집한 음악 표면에서 떨어져 상당히 가벼운 짜임새와 투명한 폴리포닉적인 표면이 뚜렷이 나타난다. 후기 음악에서는 대위법적 짜임새가 다소 완화되었고 대위법과 화성이 치밀하게 균형을 이루며 융합되어 나타나는 ‘화성의 혁신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악보 3>의 작품을 보면 불협

화음을 사용한 4성화음을 피차카토로 반음계 상행진행 하였고, 감 9도 도약하는 음을 사용한 멜로디를 옥타브 더블링으로 나타내는 등의 ‘화성의 혁신적 사용’ 을 보여준다.

<악보 2>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소품 Op.4 제4곡

<악보 3> 시포니아 콘체르탄테 1악장 167-176마디

그의 작품에선 ‘서정적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20세기 작곡가 중에선 <악보 4>, <악보 5>, <악보 6>와 같이 극히 낭만적이고 서정성 짙은 선율을 많이 사용하였다. 서정적인 선율을 진행하다가도 <악보7>과 같이 불협화음이나 반음계를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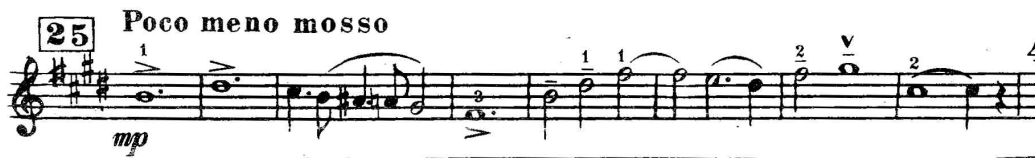
<악보 4> 신데렐라 Op.87 1. Introduction 1-4마디

<악보 5> 순간의 환영 Op.22 제 16곡 1-4마디

<악보 6> 시포니아 콘체르탄테 2악장 116-125마디



<악보 7> 시포니아 콘체르탄테 3악장 336-443마디



프로코피에프는 슈만(Rovert Schumann, 1810-1856)의 토카타를 듣고 강한 인상을 받아 큰 영향을 받아 ‘토카타적 요소’를 사용한 <악보8>, <악보 9>의 ‘토카타(Toccata in D minor, Op.11)’를 작곡하였다. 리듬패턴을 사용하여 주제를 차별화 시키고, <악보 10>과 같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규칙하지는 않고 박자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박의 분할로 다소 규칙적인 리듬을 사용하여 ‘토카타적 요소’를 나타냈다.

<악보 8> Toccata C Major Op.11 1-4마디



<악보 9> Toccata C Major Op.11 111-114마디

<악보 10> 어릿광대 모음곡 Op.21bis 제 7곡 30-31마디

115 Più mosso. (Andantino)

그는 화성의 불협화음을 사용하거나 스케르쪼의 성향을 가진 변덕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요소를 사용하여 작품 속에 그만의 ‘해학적인 요소’도 추가하였다. <악보 11>은 첼로의 옥타브 꾸밈음과 피아노의 오른손 높은 성부를 첼로와 같이 3도 화성으로 연주하고 스타카토와 쉼표, 악센트를 사용한 리듬으로 익살스럽게 표현한다. <악보12>에서는 피아노의 *sf*를 사용한 불협화성과 첼로의 2옥타브로 된 16분음표 리듬이 서로 주고 받으며 익살스러운 ‘해학적 요소’를 보여준다.

<악보 11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2악장 386-395마디

The musical score for '악보 11'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and the string part with a bass clef. The piano par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staccato and accents, and a dissonant harmonic structure. The string part has a bass clef and a 3/4 time signature.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piano and string parts. The third system shows the piano part with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and the string part with a bass clef. The piano part has a treble clef and a bass clef, and the string part has a bass clef. The score includes dynamic markings like 'mp' and 'sf', and a rehearsal mark '385'.

<악보 12> 심포니아 콘체르토 2악장 397-402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includes a woodwind part (labeled 'Ottoni')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woodwinds play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imilar rhythmic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a more complex bass line in the left hand. Dynamics include *f* and *sf*. The second system includes a string part (labeled 'Archi')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strings play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imilar rhythmic pattern in the right hand and a more complex bass line in the left hand. Dynamics include *dim.*, *mp*, and *f*.

프로코피에프 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뛰어나게 표현한 요소는 토카타적 요소와 해학적 요소이며 강조하고 싫어했던 요소는 서정적요소와 고전적 요소이다. 하지만 그는 어느 한 요소에만 집중하여 작곡하지 않고, 서정적이며 해학적이고, 고전적이며 혁신적인 여러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작곡하였다.

이 논문의 주제인 ‘Cello Sonata Op.119’ 에도 자주 등장하는 프로코피에프의 5가지 음악적 특징을 분석과 함께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Ⅲ.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소나타 Op.119의 분석

S. Prokofiev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는 프로코피에프의 후기작품으로 유일한 첼로 소나타이다. 1947년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아 1949년 완성하였으며, 1950년 초연 당시 관객들로부터 놀라운 호평을 받은 곡이다. 그 후에 첼로 곡을 더 작곡했으나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한 Sinfonia Concertante Op.125만 완성하고 나머지 작품은 미완성으로 남긴채 생을 마감하였다.

이 작품은 프로코피에프의 젊은 시절 실험적인 음악과 달리 좀 더 조성적이고 서정적인 멜로디를 담고 있다.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전적인 소나타의 특성 속에 새로운 시도를 도입하는 신고전주의적 경향을 가진 곡이다.

<표 1> 프로코피에프 첼로소나타의 구성

악장 구성	빠르기	박자	형식
1악장	Andante Grave	3/4-2/4	소나타형식
2악장	Moderato	4/4	3부형식
3악장	Allegro ma non troppo	2/2	소나타형식

1. 제 1악장

1악장 Andante grave는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의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보통 고전 소나타의 1악장에서 나타나는 빠르기 ‘빠른-느린-빠른’와는 달리 Andante grave의 느린 빠르기로 시작된다. 1악장에서는 3/4박자로 시작하나 여러 박자 변화를 거쳐 2/4로 끝나며 빠르기 Andante grave로 시작하여 Allegro moderato로 끝이 나는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이다.

<표 2> 1악장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제시부	제1주제부	1-32	C-B
	제2주제부	33-61	G
	종결부	62-70	a
발전부	제1부분	71-89	C
	제2부분	90-111	E ^b - G-E-a
	제3부분	112-135	g [#]
재현부	제1주제부	135-165	C
	제2주제부	166-185	C
Coda (종결부)		186-243	C

1) 제시부

-제 1주제부(1-32마디)

제시부에서 제 1주제부는 1-14마디 무반주로 첼로의 제일 낮은 음역에서 시작하여 주제를 나타낸다. 첫 3마디동안 첼로 연주자에게 독주로 무게감있고 깊이있는 소리를 내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완전 5도를 도약하는 멜로디는 1악장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첼로가 G음을 지속하는 동안 피아노가 멜로디를 받고나와 피아노와 첼로가 주고받는 기법으로 선율을 진행시킨다.

<악보 13> 소나타 Op.119 1악장 1-12 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The top staff is for Cello, marked 'Andante grave' with a tempo of 54. I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intervals of a perfect fourth and a perfect fifth highlighted. The second staff is for Piano, with a 'pizzicato voce' instruction and a dynamic marking of 'p'. The third staff is for Violoncello (Vc.), with a 'poco cresc.' instruction and a dynamic marking of 'mf'. The bottom staff is for Piano (Pno.), with a 'poco cresc.' instruction and a dynamic marking of 'p'.

제1주제가 제시된 후 <악보 14>의 첼로에서는 트레몰로와 5연음포 스케일로 연주하는 가운데 피아노가 서정적 멜로디를 진행한다. 이때 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후에 발전부에서 주제를 발전시키는 모티브가 된다.

<악보 14> 소나타 Op.119 1악장 13-18마디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노래되다 첼로의 갑작스러운 강한 피치카토가 나오며 피아노의 강렬한 선율이 추가된다.<악보 15> 이는 프로코피에프스러운 작곡진행으로 갑작스럽게 전조가 되며 불협화적 요소도 포함이 된다.

<악보 15> 소나타 Op.119 1악장 21-26마디

-제 2주제부(33-61마디)

첼로의 최저음부에서 시작했던 제 1주제부와 달리 제 2주제부는 고음의 멜로디가 G Major로 전조되어 노래하며 프로코피에프만의 서정적인 요소를 담은 음악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악보16>

<악보 16> 소나타 Op.119 1악장 33-38마디

제 2 주제

특히 <악보 17>의 41-46마디에서는 피아노와 첼로가 변주된 제 2주제부를 주고받으며 대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프로코피에프가 즐겨쓰던 기법으로 곡 여러 부분에서도 나타나며 대위기법으로 한층 긴장된 분위기를 만든다.

<악보 17> 소나타 Op.119 1악장 41-46마디

Codetta 부분으로 피아노와 주고받던 제 2주제부의 멜로디가 전조되어 연주되고 첼로의 피치카토와 하모닉스 기법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제 2주제부를 마무리한다.<악보19>

<악보 18> 소나타 Op.119 1악장 62-70마디

2) 발전부

-제 1부분(71-89마디)

제 1주제의 변형으로 피아노가 연주하던 제1부의 제 1주제부 13마디의 모티브가¹⁰⁾ 16분음표로 Moderato animato, 2/4 박자도 빠르게 발전되어 진행된다. 곡의 맨 처음과 마찬가지로 첼로의 솔로 연주로 발전부의 시작을 알리며 곧 피아노가 대위적으로 따라들어온다.

<악보 19> 소나타 Op.119 1악장 71-76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71-76 of the first movement of Sonata Op. 119. The Violin part is in the bass clef, and the Piano part is in the treble and bass clefs. The tempo is Moderato animato with a metronome marking of 100. The key signature has one sharp (F#). The score includes annotations for 'Moderato animato ♩=100', '<악보 14> 모티브' in both parts, and a dynamic marking of 'mf' in the piano part.

피아노의 둔탁한 연속 화음위에 첼로는 제 1주제를 변형하여 다시 노래한다. 3/4박자로 돌아와 템포가 약간 느려진다. 피아노의 연속된 화음 3번째 박자에 감7 화음을 *sf*로 연주하게 하여 첼로의 멜로디도 강조시킨다.<악보 20>

10) <악보 14> 참고

<악보 20> 소나타 Op.119 1악장 79-82마디

-제 2부분(90-111마디)

<악보 14>의 모티브를 피아노가 시작하는 제 1부분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90마디부터 98마디까지 피아노가 옥타브 더블링으로 연주하여 화려하게 제 2주제부를 나타낸다. 첼로와 피아노가 멜로디를 주고 받으며 99마디에서 3/4박자로 돌아가 Andante로 변화된다. 피아노가 완전 4도와 완전 5도의 음정을 사용하여 32분음표의 화려한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며 주제를 나타내고 첼로는 제 2주제를 연주하며 더 화려하게 장식한다. 101마디에서 *con espressione drammatico*의 나타냄말을 사용하여 감정을 극대화시키며 프로코피에프의 단순하고 흥미로운 고전적인 요소를 보여준다. 제 2부분은 90마디의 Moderato animato에서 97마디의 Andate로 바뀌는 다이내믹한 박자와 *p*와 *f*를 넘나드는 셈여림의 변화를 사용하며 마무리한다.<악보 21>

<악보 21> 소나타 Op.119 1악장 90-102마디

Moderato animato ♩ = 100

Pno. *mf* 유타프 디플렉션

Vc. *f* 완전4도 완전4도

Pno. 유타프 디플렉션 *poco rit.*

Vc. *f*

Pno. *Andante* 완전5도 완전4도 *mf* *dim.* *p* 완전4도 완전5도

Vc. *con espressione drammatico*

Pno. *mf*

-제 3부분(112-135마디)

피아노의 상행하는 화음을 진행한 후에 첼로와 피아노가 제2주제의 멜로디를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첼로가 피치카토로 연주한 도약 화음을 피아노가 주고받는 토카타적인 대화형식으로 되어있다.<악보 22>

<악보 22> 소나타 Op.119 1악장 112-118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iolin (Ve.) and Piano (Pno.) for measures 112-118. The score is written in a key with one flat (B-flat) and a 3/4 time signature.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shows measures 112-114. In measure 112, the piano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p*. In measure 113, the piano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mp*. In measure 114, the violin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mp* and is marked *arco*. The second system shows measures 115-118. In measure 115, the violin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p* and is marked *pizz.*. In measure 116, the violin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mf* and is marked *arco*. In measure 117, the piano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p*. In measure 118, the piano part has a dynamic marking of *p*.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ties, and dynamic markings.

3) 재현부

-제 1주제부(135-165마디)

순식간에 긴장이 완화되며 3/4박자 Andante grave로 변화되며 원조인 C Major로 돌아와 피아노의 오른손 성부에서 제 1주제가 연주되며 첼로가 받아 연주한다.<악보 23>

<악보 23> 소나타 Op.119 1악장 135-140마디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135-140. The score is in 3/4 time and C major. The tempo is marked 'Andante grave, come prima'. The violin part starts with a rest, then plays a melodic line. The piano part has a right-hand melody and a left-hand accompaniment. Dynamics include *p*, *mp*, and *f*. The piano part has a *legato* marking.

-제 2주제부(166-185마디)

제 2주제가 재현되어 나타나며 형식적으로 고전적인 요소를 나타나며 고전소나타 양식에 따르고 있다. 1주제부와 똑같이 피아노의 오른손 성부가 제2주제 멜로디를 시작하며 완전4도위의 조로 조옮김된 멜로디를 첼로가 받아 서로 주고받으며 연주된다.<악보24>

<악보 24> 소나타 Op.119 1악장 166-171마디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166-171. The score is in 3/4 time and C major. The violin part plays a melodic line. The piano part has a right-hand melody and a left-hand accompaniment. Dynamics include *mf* and *mp*. The piano part has a *cresc.* marking.

4) Coda(종결부)

종결부는 Allegro moderato, Meno mosso, Piu mosso 의 세가지 빠르기로 이루어져있다. 피아노 모티브¹¹⁾의 변형으로 첼로가 선율을 시작하고 피아노 그리고 첼로와 피아노의 병행진행으로 나타난다.<악보 25>

<악보 25> 소나타 Op.119 1악장 186-193마디

The musical score for the Coda section (measures 186-193)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measures 186-190, and the second system shows measures 191-193. The Violin (Vc.) part is in the upper staff, and the Piano (Pno.) part is in the lower staff. The tempo is marked 'Allegro moderato' and 'sul D'. The Vc. part starts with a piano (p) dynamic and moves to mezzo-forte (mf) by measure 190. The Pno. part starts with a piano (p) dynamic and moves to mezzo-forte (mf) by measure 190. The Vc. part has a crescendo (cresc.) leading to a forte (f) dynamic by measure 193. The Pno. part has a forte (f) dynamic starting in measure 193.

203마디에서 빠르기가 Meno mosso로 변화하며 제 1주제부 중 19-27마디의 특징을 피아노에서의 화성진행과 첼로의 피치카토, 32분 음표와 9연음의 다양하고 화려한 기법으로 연주한다. 9연음이 나오는 211마디에서 C[#] Major로 전조시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악보 26>

11) <악보 14> 참고

<악보 26> 소나타 Op.119 1악장 203-214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ystems for Violin (Vc.) and Piano (Pno.).

- System 1:** Labeled *Meno mosso*. The Violin part begins with a rest, followed by a series of chords and a melodic line. The Piano part provides a harmonic accompaniment with chords and moving lines. Dynamic marking: *f*. A *pizz.* marking is present in the Violin part.
- System 2:** The Violin part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arco* marking. The Piano part continues with accompaniment. Dynamic marking: *f*.
- System 3:** The Violin part has a melodic line with a *poco rit.* marking. The Piano par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a *cresc.* marking. A *12* is written above the piano part.

215마디에서 빠르기가 Piu mosso로 변화되며 첼로의 빠른 16분음표, 32분음표로 이뤄진 *ff*의 리드미컬한 선율에 피아노의 2분음표와 4분음표로 이뤄진 가득 채우는 화성의 반주로 이뤄져있다.<악보 27>

<악보 27> 소나타 Op.119 1악장 215-218마디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215-218. The score is in C major and 4/4 time. The violin part features a rapid sixteenth-note pattern. The piano accompaniment consists of sustained chords and a bass line with some movement. The tempo marking *Piu MOSSO* is present.

중지가 첼로의 피치카토와 하모닉스 기법으로 진행되며 C Major의 으뜸음인 C음이 지속음으로 사용하며 C Major로 고전적 요소를 가진 완전 중지로 끝나 친다.<악보 28>

<악보 28> 소나타 Op.119 1악장 238-243마디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238-243. The score is in C major and 4/4 time. The violin part is marked *arco* and features a melodic line.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sustained harmonic texture. The piece concludes with a final chord in C major, labeled "C Major 으뜸음 완전중지".

2. 제 2악장

2악장은 F Major, 4/4박자 스케르초풍의 3부형식, Moderato의 빠르기로 되어있다. 고전소나타의 2악장들이 느린 속도인 반면 프로코피에프의 첼로 소나타 2악장은 Moderato로 되어 그의 서정적이고 해학적인 요소를 특히 잘 표현하고 있다.

〈표 3〉 2악장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박자
A	1-49	F	4/4
B	50-93	B ^b	3/4
A'	94-108	F	4/4
Codetta	109-113	F	

1) A부

A부는 피아노의 전주로 시작하며 *p*의 스타카토로 연주되며 해학적 요소를 보여준다. 스타카토로 연주하여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며 반음계적으로 내려오는 화성이 이곡의 주제와 곡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게 쓰인다. 피아노의 선율후 첼로가 피치카토로 경쾌한 음악을 받아 주고 받은 후 반음계적 화성진행으로 주제를 끝마친다.〈악보 29〉

<악보 29> 소나타 Op.119 2악장 1-10마디

Cello

Piano

Vc.

Pno.

반음계적 하행선율

반음계적 하행선율

주제 b가 주제 a와 달리 피아노의 단음계선율로 나타난다. 첼로와 피아노는 스타카토와 피치카토로 도약적인 반복 진행된 선율을 연주한다.<악보 30>

<악보 30> 소나타 Op.119 2악장 13-17마디

Vc.

Pno.

Vc.

Pno.

3/2 박자로 바뀌며 피아노가 반음관계로 밀집한음을 스타카토로 크레센도하며 진행한다. 후에 다시 4/4 박자로 바뀌어 첼로가 3중꾸밈음을 가진 화려한 아르페지오 연주하고 16분음표의 3연음표로된 반음계적 하행선율이 피아노의 오른손 화성과 같이 병행하여 진행한다.<악보 31>

<악보 31> 소나타 Op.119 2악장 24-29마디

첼로가 주제를 변형한 선율로 노래하며 A부를 마무리하며 B부분과 연결이 된다.

2) B부

B부는 3/4박자로 바뀌어 시작하고 A부의 버금딸림음조인 B^b Major로 시작된다. 이 부분은 해학적 요소를 가진 2악장에서 서정적 요소를 가진 부분으로 A부와 달리 긴 음가의 음표를 사용하여 매우 서정적인 선율로 노래한다. 첼로가 주제를 한번 연주 후 옥타브 위로 한번 더 연주한다.<악보 32>

<악보 32> 소나타 Op.119 2악장 47-57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beginning of the section with a Cello (Vc.) and Piano (Pno.) part. The Cello part starts with a whole note chord, followed by a half note chord, and then a melodic line. The Piano part features a complex accompaniment with chords and moving lines.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rit.' (ritardando), 'mf espress.' (mezzo-forte, espressivo), 'Andante dolce' (Andante dolce), 'dim.' (diminuendo), and 'p legato' (piano, legato). The tempo is marked as quarter note = 60.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elodic development in the Cello and the accompaniment in the Piano, ending with a forte (f) dynamic.

피아노의 왼손에서 F 지속음으로 F Major를 강조하고 3화음을 반복적으로 상행 진행한다. 피아노의 오른손에서 옥타브로 새로운 선율을 연주하고 첼로가 넓은 음역대의 8분음표 선율로 피아노의 선율 리듬을 모방하여 주고받는다.<악보 33>

<악보 33> 소나타 Op.119 2악장 65-71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65-71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iolin (Vc.) and piano (Pno.) parts. The violin part starts with a forte (*f*) dynamic and includes an annotation '옥타브선들' (Octave lines) above a group of notes. The piano part features a forte (*f*) dynamic and an annotation 'F 지속음' (F sustained note) below a chord.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piece, with the violin part marked *mp* and the piano part marked *mp*. The annotation '옥타브선들' is repeated above the violin part.

첼로가 주제리듬을 피치카토와 아르코를 사용하여 다양한 음색으로 재현한 후 *f*에서 *p*로 셈여림의 변화를 주며 A' 부분으로 이어진다.

<악보 34> 소나타 Op.119 2악장 90-93마디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90-93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iolin (Vc.) and piano (Pno.) parts. The violin part starts with a forte (*f*) dynamic and includes an annotation '주제리듬' (Theme rhythm) above a group of notes. The piano part features a forte (*f*) dynamic.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piece, with the violin part marked *p* and the piano part marked *p*. The annotation 'pizz.' (pizzicato) is placed above the violin part.

3) A' 부

A' 부는 F Major, Moderato primo 로 바뀌며 주제가 다시 나타난다. 105마디에서 피아노가 주제를 연주하고 107마디에서 첼로가 하모닉스로 A 부분과 다르게 주제를 연주한다. 피아노에선 스타카토로 반음계적 하행선율을 사용한다.<악보 35>

<악보 35> 소나타 Op.119 2악장 105-108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105-108 of the second movement of Sonata Op. 119. The piano part begins at measure 105 with the main theme (주제) in F major. The violin part enters at measure 107 with a harmonic version of the theme (하모닉스주제). The piano part features staccato and descending chromatic lines.

4) Codetta

피아노의 8분음표와 1악장에서 많이 사용하던 첼로의 4화음 피치카토가 주고 받는다. 피아노의 넓고 빠른 상행하는 분산화음 아르페지오 연주 후 F Major 의 으뜸화음으로 2악장을 끝낸다.<악보 36>

<악보 36> 소나타 Op.119 2악장 109-113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109-113 of the second movement of Sonata Op. 119. The piano part features a wide, fast ascending arpeggiated chord (분산화음) and ends with a tonic triad (e 으뜸화음). The violin part has a pizzicato section and a final chord.

3. 제 3악장

3악장은 Allegro ma non troppo의 2/2박자의 소나타형식이다. 제 1악장의 조성인 C Major이며 형식과 구성이 유사하나 빠르기만 3악장이 더 빠르다.

〈표 4〉 3악장의 구성

구성		마디	조성
제시부	제 1주제부	1-31	C- A ^b
	제 2주제부	32-101	D ^b -A
발전부		102-137	F
재현부	제1주제부	138-169	C-A ^b -g- e ^b
	제2주제부	170-207	
Coda(중결부)		208-221	C

1) 제시부

-제 1주제부(1-31마디)

3악장의 제시부는 피아노의 스타카토로 연주하는 분산화음 진행위에 첼로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타난다. 8마디에서 A^b Major로 전조되며 피아노가 옥타브로 주제를 이어받는다.<악보 37>

<악보 37> 소나타 Op.119 3악장 1-11마디

-제 2주제부(32-101마디)

제 2주제부는 D^b Major로 바뀌고, D^b 음을 피아노의 왼손과 첼로가 같이 연주하여 D^b Major를 강조한다. 서정적인 제 1주제부를 지나 2악장과 유사한 주제가 경쾌하게 보여지며 2악장의 주제를 모티브한 리듬이 나타난다.¹²⁾ 첼로가 으뜸화음 4화음의 강한 피치카토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피아노가 제 2주제를 마르카토, 스타카토, 악센트로 이루어진 선율로 연주한다. 그리고 이를

12) <악보 29> 참고.

피아노와 첼로 바뀌서 연주하고 악센트를 사용해 2주제를 강하게 마무리한다.

<악보 38>

<악보 38> 소나타 Op.119 3악장 32-39마디

D[♯] Major 으뜸화음

Vc.

Pno.

ff

arco

ff

D[♯] 지속음

2악장주제 리듬 모티브

D[♯] 지속음

2) 발전부

F Major로 시작되는 발전부는 Andantino로 진행되는 피아노의 단선율 후에 페르마타로 마무리하고 Meno mosso로 빠르기가 변화하며 피아노에서 F Major 으뜸화음 화성진행으로 나타난다. 첼로는 발전부동안 약음기를 끼고 연주를 하고 피아노의 화성진행위에 서정적인 선율로 노래한다. <악보 39>

<악보 39> 소나타 Op.119 3악장 102-109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The top staff is for the Piano (Pno.), starting with a piano (*p*) dynamic and a fermata over the final note. The middle staff is for the Violoncello (Vc.), marked *con sord.* and *mp*.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ano (Pno.), providing harmonic accompaniment. A section starting at measure 107 is marked *Meno mosso* and *p legato*, with a note *F Major 으뜸화음* below it.

피아노의 왼손이 으뜸음 F를 셋잇단음표와 지속음으로 이뤄진 리듬으로 강조하며 오른손이 새로운 선율을 *p*로 나타낸다. 주제를 피아노가 받아 연주할 때 첼로는 32분음표의 빠른 선율을 *p*로 반주한다.<악보 40>

<악보 40> 소나타 Op.119 3악장 126-128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for Violin (Vc.) in bass clef, 7/8 time. It begins with a piano (*p*) dynamic and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of eighth and sixteenth notes. The bottom staff is for Piano (Pno.) in bass clef. The right hand has a melodic line with a long slur, and the left hand has a triplet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also starts with a piano (*p*) dynamic.

3) 재현부

-제 1주제부(138-169마디)

3악장 재현부의 제 1주제부는 첼로의 피치카토와 피아노의 상행하는 반음계적 진행으로 재현부로 넘어간다. 약음기를 제거하고 다시 원조인 C Major로 진행하며 제시부의 1주제와 동일하다.<악보 41>

<악보 41> 소나타 Op.119 3악장 134-139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first subject of the recapitulation in the third movement of Sonata Op. 119, measures 134-139. The score is for Violin (Vc.) and Piano (Pno.). The Vc. part starts with a pizzicato (pizz.) marking and a triplet of eighth notes. The Pno. part features a piano (p) dynamic and a melodic line with a triplet. A bracket labeled '반음계적 진행' (chromatic progression) spans the Pno. part. The Vc. part ends with a 'senza son. arco' (without bow) marking and a piano (p) dynamic. A second system shows the Vc. part with a '1주제와 동일' (same as first subject) marking and the tempo 'Allegro, ma non troppo'. The Pno. part continues with a piano (p) dynamic.

-제 2주제부(170-207마디)

제 2주제가 B^b Major으로 변형되어 피아노의 오른손이 옥타브로 제 2주제를 강하게 재현한다.<악보42>

<악보 42> 소나타 Op.119 3악장 170-174마디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Violin (Vc.) and Piano (Pno.) for measures 170-174. The key signature is B-flat major (two flats)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score is divided into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iolin part in the upper staff and the piano part in the lower staff. The piano part features a prominent octaved melody in the right hand, marked with a forte (ff) dynamic and an 'arco' instruction. The violin part is also marked 'arco' and 'ff'.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piano part's octaved melody, with the violin part playing a simple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is marked with accents and slurs, and the dynamic remains 'ff'.

첼로가 5연음표 상행스케일을 연주하고 피아노에서는 2악장 주제가 모트브된 주요리듬을 반복해서 연주한다.¹³⁾ 196마디에서 첼로가 6연음표 상행스케일로 변화하며 피아노가 32분음표 상행스케일로 주고받으며 연주한다. 이때 속도와 스케일의 길이가 점점 급박해지고 확대되어 긴장감을 일으키며 이는 마지막 Coda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악보43>

13) <악보 38> 참고

<악보 43> 소나타 Op.119 3악장 194-198마디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ystems, each with a Violin (Vc.) and Piano (Pno.) part.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B-flat and E-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first system (measures 194-195) features a violin part with an arpeggiated figure and a piano part with chords. The second system (measures 196-197) shows the violin playing a melodic line and the piano playing chords. The third system (measures 198-199) shows the violin playing a melodic line and the piano playing chords with a 'cresc.' marking. The fourth system (measures 200-201) shows the violin playing a melodic line and the piano playing chords with a 'cresc.' marking. A double bar with a '2주제 주요리들' (2 themes main motifs) annotation is present in the second system.

4) Coda(종결부)

첼로의 6연음표와 4분음표의 조화로 곡이 고조된다. 4분음표는 으뜸음인 C³ 부터 한음씩 순차적으로 상행하며 몰아치고 피아노에서 긴음가의 음표와 반음계적 불협화음이 나타난다. 219마디에서 첼로가 C Major 2옥타브 스케일을 16분음표와 32분음표로 화려하게 연주하며 피아노와 같이 최저음의 으뜸음 C로 곡을 끝낸다. 고전적인 형식 안에서 불협화음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요소도 보여주는 부분이다.<악보 44>

<악보 44> 소나타 Op.119 3악장 215-221마디

The musical score for the Coda section (measures 215-221)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c. playing six sixteenth-note chords, with the Pno. providing harmonic support. The second system features a melodic line in the Vc. and a melodic line in the Pno. The third system concludes with a final sixteenth-note chord in the Vc. and a melodic line in the Pno. Annotations include 'C부터 순차적 진행' (C starting sequential progression) and 'C Major 으뜸화음' (C Major tonic chord).

IV. 결론

지금까지 Prokofiev의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의 분석과 함께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3악장으로 구성된 ‘Prokofiev Cello Sonata Op.119’는 프로코피에프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 곡이며 그의 후기 작품에 속하는 194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의 작품의 특성인 고전적인 양식을 유지하면서도 서정성과 시대적인 해학성이 감미된 20세기 중요한 첼로 문헌이다.

프로코피에프는 1891년부터 1918년까지 러시아에서 음악교육을 받던 전기, 1918년부터 1936년까지 러시아를 떠나 유럽과 미국에서 음악활동을 하던 중기, 1936년부터 1953년까지 러시아로 돌아와 음악활동을 하던 말기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시기별로 작품의 변화가 뚜렷이 느껴지지 않으며 그의 음악은 주제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약간 변형되기도 하지만 종지나 양식의 변화를 통해 고전적 형식을 유지하려하였다. 초기에는 좀더 극단적이며 파격적인 불협화음을 사용해 화성의 혁신적인 실험을 하였으나 그의 전체 작품을 보면 화성의 혁신성과 리듬의 변화를 통한 음악적 요소를 일관되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박의 변화, 반복되는 리듬, 솔로와 반주가 주고 받는 토카타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여 작품을 극적으로 진행시켰다.

그는 20세기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듣기 쉬운 서정적인 멜로디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화성의 혁신적 요소를 통해 해학적이면서 서정적인 프로코피에프만의 음악적 색을 만들어 냈다. 그의 음악은 ‘고전적 요소, 화성의 혁신적 요소, 서정적 요소, 토카타적 요소, 해학적 요소’의 5가지 음악적 특징을 전 시기에 걸쳐 보여주고 있으며 ‘Prokofiev Cello Sonata Op.119’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1악장은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로 구성된 고전적인 소나타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두 개의 주제로 곡을 이끌어가고 있다. 고전적인 양식 속에 전조와 빠르기 변화, 박자변화, 불협화음적 화성진행으로 주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2악장은 스케르초풍의 3부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고전소나타와는 달리 빠른 빠르기로 되어있다. 원조인 C Major의 버금딸림음조인 F Major로 되어있으며 프로코피에프만의 해학적이며 서정적인 면을 가장 잘나타낸 악장이다. 3악장은 1악장과 같이 고전 소나타양식으로 되어있으나 1악장보다 더 빠른 빠르기로 되어있다. 원조인 C Major로 진행되며 1악장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주제가 곡을 이끌어가 재현부에서 원조로 회귀하여 곡을 마무리한다.

이와 같이 프로코피에프는 ‘고전적, 혁신적 화성 사용, 서정적, 토카타적, 해학적’ 요소를 그의 전체 작품에 나타나게 하고 그만의 음악적 특징으로 강조하였다. 그의 유일한 첼로소나타인 ‘Prokofiev Sonata for Cello and Piano Op.119’ 는 고전적인 형식안에서 프로코피에프만의 서정적인 선율과 해학적인 요소, 다양한 빠르기와 박자변화, 불협화음등 혁신적인 요소를 통해 그만의 음악을 나타냈으며 가장 작곡가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작품중 하나이며 신고전주의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20세기 중요한 실내악 작품이다.

참고문헌

1. 국내서적

음악 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프로코피에프 편. 서울: 음악세계 2002

음악지우사. 프로코피에프. 서울:음악세계 2002

음악지우사. 러시아악파. 서울:음악세계 2003

김문자.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 2. 서울: 심설당 2004

한미숙. 20세기 작곡가 연구 II. 서울: 음악세계 2009

존스텐리. 천년의 음악여행. 서울:도서출판 예경 2006

설정환. 러시아 음악의 이해. 서울:음악춘추사 1995

김미림. 작곡법과 음악분석. 서울:한국학술정보 2011

백병동. 화성학. 서울:수문당 1998

울리히미헬스. 음악은이. 서울:음악춘추사 2002

2. 국내 학위논문

홍정은(2012).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소나타 G 단조> 와 프로코피에프의 <첼로소나타 C장조>에 대한연구. 울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성(2007). L.v.Beethoven Sonata for Violin and Piano No.5 in F Major Op.24, A.Dvorak <Zigeunermelodien> Op.55, S.Prokofiev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현이(2001). 20세기 전반의 시대적 배경과 프로코피에프의 음악 : violin

sonata no.2 op.94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혜림(2009). 20세기 피아노 음악의 타악기적 주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Musical Characteristics of S. Prokofiev and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

JinYoung, Lee
Major in Instrumental music
Department of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cello sonata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 of Prokofiev was analyzed, based on five musical features: classical elements, innovative elements of harmony, Toccata elements, lyrical element, humorous elements and various composition techniques.

Prokofiev is a Russia born musician who is representative the 20th century. He is a pianist, as well as a composer of numerous operas, chamber music, symphony, and ballet. Prokofiev's music can be divided into three active periods: the early days of experimental and innovative music during his early years, the middle period of work while he was in the US and Europe after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last period

after he returned to Russia under the Stalinist government.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C Major, Op.119' was composed in the third period when Prokofiev returned to Russia, and it was influenced by Rostropovich. Cello Sonata Op.119 is the only cello sonata, composed and completed by Prokofiev which is composed of three movements. The first movement consists of a classical sonata form of exposition, development, and recapitulation, beginning with a slow pace of Andante and leading to two themes. The second movement consists of a scherzo style ternary form and proceeds to the F Major, the subdominant key of the first movement C Major. The third movement is in the same sonata form as the first movement and proceeds to C Major, the original key.

The compositional technique of the Cello Sonata by Prokofiev employs a classicist style that can be seen in classical sonatas, and it is a song that shows five kinds of compositional techniques, generally classified as "classical, innovative, toccata, lyrical, and Humorous" which are thematic elements often emphasized by Prokofiev. In addition, it shows neoclassical characteristics through various beat and speed changes.